

#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

코로나-디지털 시대  
유네스코의 지적·도덕적  
연대의 의미

박 명 규  
(광주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

# UNESCO ISSUE BRIEF



이 글은 유네스코 이슈를 분석하고  
관련 정책제언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집필자의 의견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원고 중간 발표회'를 통해 집필자가 주제 관련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중간 발표회 일자**

2021년 11월 1일

#### **중간 발표회 구성**

발표 | 박명규 (광주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

토론 |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 | 한건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2021년 제6호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



# UNESCO ISSUE BRIEF



# 코로나-디지털 시대 유네스코의 지적·도덕적 연대의 의미

박명규 (광주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

## 1. 코로나-디지털 시대의 도래

코로나 19의 출현으로 인한 전 지구적 충격이 커서 새로운 BC-AC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지도 제법 되었다.<sup>[1]</sup> 과연 코로나 19의 C가 Jesus Christ의 C에 맞먹을 만큼 시대구분의 변수가 될지는 향후 역사가들이 밝힐 일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상이 회복될 것이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충격은 잠시의 위기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코로나 19는 특정 바이러스로 인한 일시적 팬데믹 현상을 지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의 문명적 위기를 포괄적으로 상징하는 언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친 이후의 세계가 이전과 매우 다른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은 디지털 기술의 충격이 더해진 탓에 더욱 커졌다. 전 세계 인류는 팬데믹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디지털의 일상화, 정보화의 환경 속으로 접어들었다.<sup>[2]</sup> 온라인은 오프라인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활동의 전 영역을 주도하는 새로운 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새로운 BC-AC 구분은 어쩌면 코로나-디지털의 공동 충격으로 인해 가시화될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로운 시대는 코로나-디지털 시대라 부르는 게 적합할 수도 있겠다.

코로나 19 시대, 또는 코로나-디지털 시대라고 불릴 수 있을 이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전 인류가 같은 위험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오늘의 모습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 당사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전쟁의 위험이나, 국가와 계층별로 충격이 같지 않은 경제위기와는 다르게 팬데믹은 글자 그대로 무차별적이다. 핵무기의 위험을 일상생활에서 실감하기 어렵지만,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이 갑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는 전 인류가 같은 조건에 처해 있음을 증명해 주는 지표다. 이런 위험의 바탕에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라는 문명적 특질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 역시 근대문명을 공유하는 현시대의 성격을 일깨우는 메시지다. 베르쿠이젠(Patrick Verkooijen) 기후변화글로벌위원회(GCA: Global Commission on Adaptation) CEO에 따르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은 “삼림 벌채, 동식물 서식지의 파괴, 상업적 목적을 위한 야생 동물 거래 등으로 전에 없던 병원균들은 인간과 더욱

[1]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을 비롯하여, 세계가 코로나 이전인 Before Corona와 코로나 이후인 After Corona로 구분될 것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전염병이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례들에 대한 책자 출간과 논의들도 속출했다.

[2] 코로나 19의 충격 이상으로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가져올 새로운 시대를 논하는 글들도 급증하고 있다. 생활의 전 영역에서 온라인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그 변화에 대한 실감도 커지고 있다. 이재열 외 [플랫폼 사회가 오고 있다], 최재봉 [포노사피엔스], 박명규 외 [커넥트파워] 등 참조.

가깝게 접촉할 수 있게 됐고, 종을 넘나들며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하고 있다.<sup>[3]</sup>

광속으로 전달되는 정보매체가 전 세계의 위험성을 실시간 공유하게 만들고, 개별 국가의 힘만으로 이에 대처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도 새로운 변화다. 코로나 19라는 재앙 앞에서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던 미국과 유럽의 인프라와 대책이 얼마나 무기력했는지를 전 세계가 지켜보았다.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2020년 2월 일본 요코하마 항에 발이 묶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는 삼시간에 ‘지옥 같은’ 공간이 되었다. 3월에는 텅 빈 로마 바티칸 광장에서 홀로 기도하는 프란체스코 교황의 비통한 모습이 전파를 탔다. 4월에는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해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의 장병들이 하선하고 함장은 해고되는 일이 벌어졌다.<sup>[4]</sup> 정부, 기업, 군대, 종교, 재산, 국제기구 그 어느 것도 이 위기를 감당하는 데 무기력했고, 지금도 그 무력감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현실은 새로운 시대 전환을 보여주는 징표인 셈이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미증유의 세계적 재앙이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협력과 연대가 절실함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역설적 현상이다. 아룬다티 로이(Arundhati Roy)는 코로나 상황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포탈이라고까지 말했다.<sup>[5]</sup> 어떤 형태로든 범지구적 차원의 협력과 연대, 실천이 새롭게 마련되지 않으면 인류공동체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되리라는 깨달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값비싼 비용을 치르면서 의미 있는 우환의식을 세계가 공유해가는 중이라 할 수 있다. 적절한 업그레이드를 수반한다면 유네스코 창립 당시의 정신, 즉 인류의 지적 도덕적 유대가 새롭게 힘을 얻는 긍정적 전환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문화일보, 2020. 9. 3.

[5] Arundhati Roy, “The Pandemic is a Portal,” *Financial Times*, 3 April, 2020.

[4] 이 사례들은 거의 모든 언론사의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다. “천당이 지옥으로: 수상감옥된 호화 크루즈선”, 연합 뉴스 2.18; “бом비 속에 홀로 선 교황, 인류를 구하소서” 매일신문, 3. 20; “미 항모의 SOS, 전쟁도 아닌데 죽게 생겨” 한겨레, 2020. 4. 등

## II. 유네스코의 창립과 활동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경험한 20세기 중반의 인류에게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일은 가장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였다. 연합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의 국가가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 간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이라는 국제기관 설립을 결의한 것은 그런 노력의 산이었다.<sup>[6]</sup> 이후 70여 년 유엔은 세계평화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기구로서 지구 곳곳의 분쟁을 해소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유엔의 전문기구로 출범한 유네스코 역시 “국제연합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는 것을 그 설립 이념으로 내걸었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활동을 전개했다.<sup>[7]</sup>

유네스코는 그 명칭에 나타나듯 교육, 과학, 문화 영역에서의 화해와 교류를 통해 인류평화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지닌다. 실제로 설립 이후 유네스코의 제반 활동은 교육, 과학, 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sup>[8]</sup> 이 가운데서도 교육 영역은 유네스코가 가장 중시한 활동영역으로서, ▲기초교육 기회의 확대 ▲평생학습을 통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 ▲국제이해교육 ▲평화교육 ▲포용교육을 통한 평화로운 지구 건설의 꿈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한 전 지구적 문제의 대응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포용적 인간-사회-문화 발전도모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어왔다.<sup>[9]</sup>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경우 교육 영역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가운데 4번째 목표(양질의 교육)인 SDG4 실현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인천에서 개최된 ‘2015 세계교육포럼’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 ‘교육 2030’은 기존의 새천년 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서 다루었던 교육목표에 비해 평생학습 관점에서 ▲교육의 접근성 확대 ▲포용성과 형평성 ▲양질의 교육과 학습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 관련 부처, 교육 유관기관, 시민사회, 학계로 구성된 SDG4-교육 2030 협의체 및 SDG4 세부 목표별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 역시 운영한다. 또한 공개교육자원(OER: Open Educational Resources)에 대한 포편적 접근을 확산하여 지식사회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내 OER 구축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한

[6] UN 홈페이지, 국제연합 헌장

[7] 류석진 외, [UNESCO와 한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8] 한경구, “평화를 향한 유네스코의 역할연구: 유네스코의 국제지적 협력활동,” [평화를 향한 유네스코의 역할], 외 교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9] 유성상, “유네스코 교육협력 활동의 성과와 새로운 접근”, [평화를 향한 유네스코의 역할], 외교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조우진, “한국의 대유네스코 교육협력”, [변화의 시대, 한국의 유네스코 협력비전], 2018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참조

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운영하는 고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공동활용 체제(KOCW: Korea OpenCourseWare)를 통해 기록 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과학 영역은 과학적 사고와 기술협력이 국제협력과 발전에 긴요하다는 판단위에 과학자를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sup>[10]</sup> 과학 영역에는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분야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고등지식 영역을 총괄한다고 볼 수 있다. 자연과학에서는 물, 생물다양성, 해양, 지질 분야에서 국내의 기관, 단체,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독려하고 국제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인간과 생물권 사업(MAB: Man and the Biosphere)은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하고 있다.<sup>[11]</sup> 또한 정부간해양학 위원회(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와 정부간수문학사업(IHP: Intergovernmental Hydrological Programme)의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6월에 설립된 ‘물 안보 및 지속가능 물 관리 국제연구교육센터’(유네스코 카테고리2 센터)가 물 분야에서 유네스코 활동 및 개도국 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국제지구과학지질공원사업(IGGP: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Geoparks Programme)을 통해 지질학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곳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해 보전하는 한편 지역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도록 돕고 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세계화와 과학기술 발전 등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철학적·윤리적으로 성찰하는 사업이 주를 이룬다.<sup>[12]</sup>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 International Bioethics Committee)가 설립되었고 정부간생명윤리위원회(IGBC: Intergovernmental Bioethics Committee),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 Commission on the Ethics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ology)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17년 유네스코는 ‘기후 변화윤리 원칙 선언’과 ‘과학 및 과학연구자에 관한 권고’를 채택했고 최근에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과 인권 침해 등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AI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국제적인 윤리 규범인 권고문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체육과 스포츠에 관한 정부간위원회(CIGEPS: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및 국제스포츠반도핑협약 관련 주요 활동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지원하고, 2016년에 설립된 국제무예센터(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 활동에 협력하고 있다. 사회 변

[10] 성지은, “평화를 위한 유네스코 국제 과학협력활동의 성과와 과제”, [평화를 향한 유네스코의 역할], 외교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배영자 외, “한국의 유네스코 과학분야 기여”, [변화의 시대, 한국의 유네스코 협력비전], 2018.

[11] 한국의 경우 현재 설악산,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숲, 고창, 순천, 강원생태평화, 연천임진강 8곳이 지정되어 있다.

[1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동 관리(MOST: Management of Social Transformations) 사업은 세계화, 국제 이주, 도시 난개발 등으로 급격한 사회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주민 인권 보호,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등의 과제에 대한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들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의 영역은 널리 알려진 세계문화유산보호 사업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분야다. 유형문화재와 별도로 무형문화재의 다양성과 보존을 특히 강조하여 토착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모든 발전이 개별 문화의 가치 위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문화생태계를 보호하는 노력과 함께, 언어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사라져가는 모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2005년에는 문화다양성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협약은 탈퇴라는 강수를 둔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화상품을 자유무역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 지구적으로 문화생태계의 다양성을 보호할 것을 결의한 것으로서 의미가 크다. 한국의 경우 제주어가 2010년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로 등록되었다. 유네스코는 공동체의 문화와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언어’의 다양성과 소멸 위기에 처한 모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토착어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네스코 설립 초기에는 강조되지 않았지만, 점차 그 비중이 커진 영역이 정보·커뮤니케이션(CI: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분야이다.<sup>[13]</sup> 미국의 제안으로 이 분과가 만들어진 이래 대중매체, 뉴스, 의사소통, 정보 공유 등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되었다. 냉전과 세계화를 거치면서 매스 미디어와 뉴스 생산,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급격히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정보 불평등, 문화제국주의 등의 쟁점도 부각되었다. 1960년대 신생독립국들을 중심으로 신국제정보질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을 때 유네스코는 세계의 정보 유통이 소수의 국가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대안을 모색하는 장을 제공했다. 이런 노력은 미국의 탈퇴라는 예기치 못한 반발에 부딪혔고 당위적인 주장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하지만 인터넷 방송과 소셜 미디어 등의 등장으로 변화된 매체 환경에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활동인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IL: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와 관련해서는 기관, 정부부처, 전문가,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MIL 교육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13] 김성해, “진화하는 커뮤니케이션 정보 분과와 한국의 미래 전략”, [평화를 향한 유네스코의 역할], 외교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 III. 지적·도덕적 연대의 현실

유네스코 헌장은 “정부와 정치적 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 ‘지적·도덕적 연대’의 정신으로 ‘마음의 평화’를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기초에는 국가이익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지식인들의 협력과 노력이 가능하고 또 필수적이라는 20세기 전반기 경험이 녹아있다. 유네스코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 런던에서 연합국 교육장관회의에서 탄생하였지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20년대 유럽 지식인들에 의해 탄생된 지적협력기구에 닿아있다.<sup>[14]</sup> 1922년 국제연맹의 자문기구로 국제지적협력위원회(ICIC: International Committee on Intellectual Cooperation)가 창설되었는데, ICIC는 정부 대표가 아닌 민간 지식인들로 구성된 조직이었다. 같은 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이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은 유명한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이었다. 이 밖에도 ICIC에는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마리 퀴리(Marie Curie), 줄리안 헉슬리(Julian Huxley), 토마스 만(Thomas Mann), 폴 발레리(Paul Valery) 등 서구의 대표적 지식인들이 참여하여 세계평화를 위한 지적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지적 흐름을 배경으로 탄생한 유네스코는 서유럽 지식인들의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간기구의 성격 못지않게 지적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구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유네스코는 지구적 의제에 대한 연대의 정신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 왔다. 무엇보다도 국제이해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대한 교육권’을 채택한 것이 주목된다. 국제이해와 협력이 평화와 깊이 연결되고,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 교육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리라는 신념을 견지하면서 1990년대 이후에는 다문화교육, 상호문화이해교육과 연계되어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도록 노력했다. 1997년에는 한국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이 설립되었고, 2015년 이후 세계시민교육의 이행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가오는 시대에 필요한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학습자의 지식과 기술, 가치와 태도를 계발하는’ 교육을 지향했던 것이다.<sup>[15]</sup>

[14] 한경우 앞의 글 및 임현목, “세계질서의 변동과 유네스코,”  
[변화의 시대, 한국의 유네스코 협력비전], 2018 참조.

[15] 유성상, 앞의 글, 30-31쪽.

과학협력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국제협력의 기초가 강조되어, 초기부터 각 전문분야의 세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과학연맹을 후원하며 과학정보의 국제정보처리기관 조직 및 운영 등을 내세웠다. 과학기술지식의 보급을 위한 ‘과학대중화’ 모델에 입각하여 과학정신의 확산에 애썼고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Conseil Européenne pour la Recherche Nucléaire)와 국제이론물리센터(ICTP: International Center for Theoretical Physics)를 설립하는 데도 기여했다. 또한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물·에너지·생태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또 「생명윤리와 인권선언」(2005), 「기후변화 윤리원칙 선언」(2017) 등의 규범 제정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문화적으로도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보호에 결정적인 공헌을 해왔다. 탈냉전과 세계화 과정에서 문화유산 등재가 과열의 기미를 보이면서 여러 문제도 생겼지만,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존중하고 보전하는 가치를 인식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온 것이다. 실크로드 문화유산 사업은 여러 관련 국가들의 갈등을 조율하고 인류 차원에서의 교류와 연결의 역사를 밝히는 데 기여했지만, 중국 중심의 실크로드 이해를 심화시킬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유라시아의 오랜 역사와 역대 국가들의 힘의 편차를 함께 연결하면서 세계이해와 국제연대의 정신을 확산시킬 수 있을지는 미래형 과제로 남아있다고 하겠다.<sup>[16]</sup>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노력도 주목할 만한데, 특히 1978년 채택된 「매스 미디어 선언」은 ‘억압받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고, 약소국이 자국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언론사를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1990년대 이후 정보사회로의 이행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다원주의’ 등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정보 접근권, 정보윤리 등에 대한 중요한 원칙들을 확인했다.<sup>[17]</sup>

하지만 이런 지구적 연대 구상은 생각만큼 잘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이 그동안의 냉정한 평가이기도 하다. 유네스코의 활동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지적·도덕적 연대’라는 목표가 실제의 프로그램과 활동 영역에서 잘 관철되지 못했다는 반성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유네스코가 상정했던 지적·도덕적 연대가 충분히 발휘될 수 없는 배경으로는 내부의 조직적 한계가 일차적으로 거론된다.<sup>[18]</sup> 집행이사회가 모두 개별 국가의 대표로 채워짐으로써 자유로운 전문가 연대의 장이 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별로 관심사와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만장일치제라 할 만큼 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세계질서를 움직이는 힘이 여전히 국민국가의 손에 있고 그것도 강대국 중심으로 작동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유네스코가 국가이익이 중심이 된 정부간기구로

[16] 강인욱, “중앙아시아 평화구축을 위한 유네스코 실크로드 문화유산 사업의 진단과 대안,” [평화를 향한 유네스코의 역할], 외교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17] 김성해, 앞의 글.

[18] 전진성, “유네스코의 조직 개혁,” 및 임현묵 앞의 글 참조.

변질되고 “국민국가의 모임을 넘는 ‘전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sup>[19]</sup>

이런 유네스코 조직 내부의 변화 요인과 함께, 출범 초기의 상황과 21세기의 상황 사이에 달라진 외적 상황 변화 또한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우선 교육의 내용과 위상이 크게 변했다. 20세기 중반 유네스코 출범 당시의 세계는 문맹 비율이 높고 엘리트들의 영향력이 높았다. 라디오와 신문을 통해 정보생산자가 다수 대중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시대였다.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었지만 아직은 무역과 상품, 정치의 영역이 중심이어서 국경은 넘기 어려웠고 비행기를 타고 평범한 시민들이 세계를 여행하는 것은 많은 경우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꿈이었다. 미국과 서유럽이 전 세계의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그들 사이의 자유로운 이동과 문화적인 교감이 가능했다는 지역적 특성이 자리하고 있었다. 20세기 후반부터 전방위로 진행된 사회기술문화의 변화는 이런 조건을 엄청나게 바꾸어 놓았다. 의무교육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리 잡으면서 비문해자의 비율은 현저히 떨어졌다. 다양한 형태로 교육정보를 접할 기회도 많아지고, 평생교육의 개념도 확산되었다. 교육은 문해력 증대나 기초지식 습득보다 창의력 교육이나 개인 역량 강화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저개발국의 교육소외계층 지원사업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브릿지 사업(Bridge Programme)처럼 교육소외계층의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여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4번 목표(양질의 교육 달성)에 기여하는 뜻깊은 사업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가치의 실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다른 국가, 다른 문화와의 접촉 기회도 현저히 증가했다. 디지털 정보매체가 등장하고 다양한 이미지 생산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국적 문화, 나와 다른 문명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급증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 산업이 성장했고, ‘먼 나라 이웃나라’를 여행하는 것이 일상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탈냉전과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권으로 연결되었고, 각종 업무와 생산, 소비의 활동이 지구적인 범위로 확대되었다. 유학을 떠나는 학생 수도 늘어났고 국제이주와 국제결혼도 낮설지 않게 되었다. 한국은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은 문화적 동질성이 강한 국가였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국경은 급속히 개방되었고 세계와의 교류속도는 급증했다. 밖으로 나가는 기업, 학생, 개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인구, 한국으로의 유학생 비율이 높아졌다. 서구문화는 물론이고 비서구의 다양한 풍속과 문화요소들이 곳곳에서 소비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변

[19] 한경구, “평화를 향한 유네스코의 역할 연구: 유네스코의 국제 지적협력 활동”, [평화를 향한 유네스코의 역할], 외교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9.

화와 함께 타문화, 이질문명을 알지 못해 생기는 오해와 편견 이상으로 일정한 접촉과 경험이 수반된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교육현장에서는 다문화, 문화다양성이 당연한 가치로 자리 잡았지만 그만큼 여러 곳에서 한국적인 것을 강조하거나 정체성의 충돌을 우려하는 견해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이와 함께 지식에 부여되던 권위도 현저히 바뀌었다. 학문은 더욱 분화되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인문학 간의 장벽은 높아지고, 어느 한 분야의 전문성이 종합적 지혜로 이어지리라는 기대는 사라졌다. 특히 과학기술이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상품과 특허의 소유물이 되거나 국가발전의 도구로 간주되어 범사회적 지혜를 구성하는 힘은 약화되었다. 인문학은 대학 울타리 안에 갇히고 그것의 쓸모가 무엇인지를 묻는 외부의 냉랭한 시선에 당혹해한다. 더구나 인터넷과 정보혁명이 진행되면서 지식과 정보를 지식인이나 학교가 전유할 수 없게 되었다.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널려있고 학교 담장을 벗어나도 얼마든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할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과 함께 도덕의 권위와 성격도 급변하고 있다. 종교의 권위가 해체된 탈종교, 세속화, 과학화의 큰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도 있지만 21세기의 도덕적 위기와 아노미 상황은 심각하다. 종교인이나 지식인에게 부여되던 권위는 현저히 약화되었고, 공공의식을 지닌 엘리트층에 대한 기대도 감소되었다. 도덕적 규범을 담당하던 교회나 대학, 법원과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제도적 신뢰도 약화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포퓰리즘의 위기는 커지고 있고, 지적·도덕적 연대의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다.

## IV.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인가

코로나 19시대에 필요한 지적·도덕적 연대는 유네스코 출범 당시의 구상을 승계하고 답습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그 정신을 이어받으면서도 크게 달라진 환경적 여건과 주체적 조건에 맞춰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우선, 교육의 방향과 형태에 대한 종합적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 인류의 상당수가 비문해자였던 시대에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무지와 편견을 해소한다는 목표는 적절하고 필요했다. 또 ▲ 교육을 수단으로 보지 않는 평생학습의 관점을 확산시킨 것 ▲ 다문화교육, 상호문화이해교육 등 국제이해교육을 통해 평화와 사회통합의 문화적 기초를 확산시킨 것 그리고 ▲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환경문제의 각성을 주도한 것 등은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춘 교육 분야의 혁신이었다. 특히 2015년 이래 세계시민교육을 내걸고 ‘국가의 교육정책이 세계시민성의 함양을 담아 기존 자국 중심의 교육과정이 전 지구적인 갈등을 다루고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특기할 일이다. 하지만 21세기 정보화와 세계화가 진전되고 팬데믹 위험을 경험한 오늘은 보다 발본적이고 총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코로나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교육의 형식과 내용이 무엇일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그 혁신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활동 공간이 넓혀지고 수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서 얻어지며 졸업장의 위상이 점차 하락하는 시대에 어떤 교육이 인류에게 유용하면서도 절실할 것인가? 이것은 교육 전문가의 고민이기 이전에 모든 부모와 가족, 청소년의 염려이고 걱정이다. 특히 취업난과 양극화를 우려하면서 과잉경쟁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에게 대안적 꿈과 방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을 확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위험의 고도화를 경험하는 시대에 과학적 전문성과 인문·사회학적 분석력을 융합하여 통합적 지혜를 구축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핵무기와 기후변화, 전염병과 인공지능의 위험을 방지하려면 보다 높은 수준의 과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보편상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첨단 기술이 야기하는 사회적, 인문적 영향을 다루는 다양한 전공의 지적 논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대화하고 토론함으로써 복합적 지혜를 구성하는 지구적 담론운동이 요구된다. 그런 융복합적 지식이 마련될 수 있다는 믿음 없이는 핵무기, 기후위기, 팬데믹, 인공지능의 영향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 자연과학의 영역이 지금보다 더 현대문명의 대전환과 위험성을 정면으로 다루는 규범적 과학연구로 이어질 필요가 있고, 자연과 생태, 기계에까지 적용될 원칙이 사회정치적 쟁점들 속에서 구현되는 통합적 윤리를 모색하는 데 과학영역의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할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sup>[20]</sup> 그러려면 지금처럼 대학체제가 분과학문 단위로 분절되고 서로 간의 장

벽이 높고 각자의 이해관계로 나누어진 시스템 전반이 개혁될 필요가 있다. 이런 변화의 절실함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기획과 역할들이 좀 더 진지하게 모색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윤리-정보-문화가 서로 연계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기술 시스템의 구상과 전환을 위한 총체적 패러다임이 만들어진다면 지적 연대의 수준과 역량이 크게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적 통합을 도덕적 연대로 연결하는 방식도 더욱 새로워져야 한다.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전문가주의, 엘리트주의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과학적 지식 그 자체로 당위적 도덕성을 이끌어낼 수도 없다. 과학적 전문성과 더불어 인류공동체의 미래를 냉정히 염려하는 위기의식과 책임윤리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도덕과 윤리의 위상이 현저히 떨어진 시대에 전 인류에게 필요한 규범은 과학적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책임윤리의 결합을 통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sup>[21]</sup> 이런 작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필요성과 시급함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일이 필요한데 유네스코가 가장 적임자일 수 있다. 유네스코의 가장 큰 힘은 그 위상과 신뢰도에 기초하여 새로운 어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시대적 담론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역량에서 찾아질 수 있다. 전 인류가 공동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구적 차원의 연대가 없으면 공멸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새로운 도덕적 연대 형성의 과제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주도하면 좋겠다. 울리히 벡(Ulrich Beck)은 현대 위험사회에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무책임성이 작동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런 책임성을 보여주는 주체로 유네스코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시민성을 강조하는 세계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론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필요한 항목이다. 유네스코가 글로벌시민교육을 강조한 것 자체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민한 대응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에 걸맞은 내용과 형식이 충분히 마련되었는지는 불확실하다. 일차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과 세계시민성의 함양 사이의 연결이 기대만큼 확실한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문화다양성, 다문화주의의 강조가 21세기 환경에서 전 인류의 공존과 평화로운 활동에 기초가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도 문명 간 충돌과 문화적 갈등이 속출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문화다양성협약과 다문화 감성의 강화는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교육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양성과 다원주의에 대한 강조가 또 다른 문화갈등과 정체성 대립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노력이 중요한 만큼 차이들의 연대양식에 대한 고민도 커져야 한다. 연대와 통합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지 않은 채 다양성과

[20] 김성해 앞의 글.

[21] 임의영, “공공성의 윤리적 토대: 한스 요나스의 책임윤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26권 제4호, 2017.

이질성 그 자체만 강조할 때 자칫 각자도생의 아노미를 심화시킬 수도 있음에 유념하는 내용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전 세계가 플랫폼으로 연결되고 소통하는 시대에 세계시민성을 함양할 적절한 방법론도 혁신해야 할 것이다. 교육을 학교가 전담할 수 없게 된 지 오래이고 정보를 관리할 책임 있는 주체도 있기 어려운 시대다. 뉴스, 정보, 영상, 시장, 여행, 상품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심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필요한 세계시민성이란 과거의 국제이해교육과 같은 것일 수 없다. 숭한 콘텐츠가 매일 곳곳에서 생산되고 공유되며 소비되는 디지털 플랫폼 사회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초연결성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성을 함양하는 방식은 창의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영상과 문화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계시민성을 확대해갈 새로운 방법론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플랫폼 사회의 도래에 맞추어 그것이 새로운 연대와 결속의 자원이 되리라고 보는 사회과학자들의 견해를 빌어본다면 세계시민성의 내용과 교육을 플랫폼 기반으로 재구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직하다.<sup>[22]</sup> 이미 사회는 조직적 명령이나 정책적 기획, 물자의 동원으로 연대를 이루기 어려운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다양한 행위자, 주체들이 무작위로 연결되고 소통하며 온라인상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유연한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있다.<sup>[23]</sup> 유네스코가 점하고 있는 국제적이고 중립적인 브랜드 파워를 활용하여 이들을 연계하여 역동적인 연대와 합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나아가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 대학, 문화단체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지구적 대화의 장을 새롭게 구축할 수는 없을까? 개인이나 기업이 네트워킹형 대학을 세우는 시대에 유네스코가 지구적 유대와 공감을 이끌어낼 종합적 플랫폼 제공자가 될 가능성은 열려 있을 것이다. 하트와 네그리(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는 정보기술혁명이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 행동하는 다수가 미래 정치의 주역이 될 것이라 예상한 바 있는데<sup>[24]</sup> 개성적인 개인이자 시민이고 국민이면서 세계의 일원이 되는 유동적인 주체가 지적·도덕적 연대의 주역으로 등장할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22] 이재열 외, [플랫폼 사회가 온다], 한울, 2021.

[24] 최재훈, "집합행동의 개인화와 사회운동 레퍼토리의 변화," [경제와 사회], 113, 2017.

[23] 박명규 외, [커넥트파워], 포르체 2019: 제레미 하이먼주, [뉴파워], 비즈니스북스, 2019.



## V. 지적·도덕적 연대 2.0을 기획하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의 힘이 커지고 시민영역과 국제기구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본다. 국경이 닫히고 이동을 엄격하게 되면서 세계화의 흐름이 주춤하고 인종주의, 민족주의, 혐오범죄의 염려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인터넷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어 빅브라더 감시사회의 출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이런 흐름과는 정반대되는 현상도 뚜렷하다. 팬데믹하에서 전 지구적 공동위험에 대한 인류 차원의 각성이 진전되고 글로벌한 대응의 불가피성에 대한 깨달음도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문명이 제공하는 초연결, 공간간 단축의 힘으로 인해 국경이 무의미해지고 오랜 영역 간 장벽이 해체되는 융복합, 크로스오버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플랫폼을 바탕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불특정 다수의 힘이 전 세계 여성들을 미투(Me Too Movement)로 이끌고 소비자들을 광범위한 불매운동에 참여시킨다. 정치운동과 환경운동도 이런 디지털 네트워크로 혁신되고 있다.

앞으로 인류는 당분간 이 두 흐름과 함께 갈 것이다. 미국과 중국으로 대비되는 자유와 개성, 통제와 감시의 역량도 같이 성장하면서 긴장도 커질 것이다. 이질적인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승인과 포용이 커지는 한편, 집단적 편견이 편중된 정보로 재생산될 수도 있다. 합리적 계산과 사적 이익에 충실한 시민들이 한순간 원초적 욕망에 휘둘리는 포퓰리즘의 주역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강조가 전 인류의 보편적 이해와 공존의 자산이 될 수도 있고 타자에 대한 무관심과 정체성 중심주의로 변질될 수도 있다. 기존의 지적연대와 도덕적 결속의 힘은 약화되지만 국가 간 갈등, 문명 간 충돌, 계층 간 불신과 세대 간 단절을 넘어설 새로운 지적·도덕적 연대에 대한 절실함은 한층 커질 수 있다.

이 문명적 전환의 갈림길에서 유네스코 창립 당시의 문제의식인 지적·도덕적 연대를 새롭게 추진할 “지적·도덕적 연대 2.0”을 기획하고 추진했으면 한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사업 하나를 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디지털로 상징되는 전례 없는 문명적 대전환의 시대에 인류에게 절실한 지적 역량과 도덕적 책임윤리를 구축하는 데 일조한다는 지구적 사명감이 수반되는 종합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다중적인 소통이 보장되는 열린 소통의 네트워크는 새로운 지적 연대의 핵심 기반이다. 인류공동체가 처해있는 공통의 위험과 재난에 대한 책임윤리와 우환의식은 새로운 도덕적 연대의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국가의 국익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면서 동시에 대중적 욕망으로부터도 자율적인 새로운 연대와 새로운 주체의 출현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지적·도덕적 연대 2.0의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전문화와 상업화, 전략화와 짝한 첨단지식들이 통합지성을 창출해 내지 못하고

다양성에 대한 강조만으로 도덕적 당위나 윤리적 책무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넘어설 역량이 이로부터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유네스코가 지적·도덕적 연대 2.0의 참신한 기획으로 이 과제를 감당해가기를 기대한다.

2021년 제6호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



발간일 2021년 12월 16일  
펴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집 국제협력팀 백영연 전문관  
디자인 수카디자인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간행물 등록번호 IR-2021-RP-6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는 대한민국 교육부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www.unesco.or.kr](http://www.unesco.or.kr)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

# UNESCO ISSUE BRIEF